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12	04. 19	04. 26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이운선 성도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최종열 성도	이운선 성도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4월 축복 인사 :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부활주일 -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 고난주간 기도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나눔의 시간 -부활주일 음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경아 Steinbauer 성도, 최상우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3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부활주일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요 20 : 19 - 23(신p183) (Johannes 20:19~23)	김정규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부활의 능력!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눅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학, 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부활의 능력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보여 줍니다.

1.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현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는 어떤 장벽도 주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2. 부활은 참된 평화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십자가가 완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3. 부활은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위로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에 숨어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사랑과 화해, 죄 사함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을 굳게 닫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미래, 경제, 관계 등)에서 부활 신앙은 어떤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2. 삶에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